

여전채 금리 5%시대... 카드론·캐피탈 등 금리상승 불가피

여전채 금리 '역대 최고치'
국고채·여전채 간극 벌어져
채권시장 불안정 등 영향
여전사, CP발행 늘려 대비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가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후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등의 금리도 올라갈 전망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전채(기타금융채 AA+, 3년물) 금리가 5%를 기록하며 상승(채권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국고채는 3.77%로 여전채 스프레드는 1.23%포인트(p)로 나타났다. 예금 수신이 불가능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여전사들의 조달비용 상승은 추후 카드론, 캐피탈 등을 이용할 차주에게 고스란히 가중된다. 여신전문회사가 전체 자금 조달의 약 70%를 여전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통상 높아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가 5%대에 진입하면서 카드론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뉴시스

진 시장금리는 보통 3개월 이후 카드론에 적용된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2~14% 수준이다.

여전채 금리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

3.80%를 시작으로 6월 4.41%로 0.61%p 상승했다. 이어 ▲7월 4.21% ▲8월 4.86%로 올라 이달 5%대에 진입한 것. 업계에서는 여전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로 채권시장 불안정과 여전채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풀이한다.

우선 채권시장이 지속해서 불안감을 띠는 원인은 한국전력의 적자다. 한전이 손해를 이어가면서 채권시장의 '대장주' 격인 공사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채권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순이다.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고 공사채의 신용리스크가 줄어야 여전채 또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전채에 관한 불신 확산 또한 금리 상승에 힘을 더한다. 금리인상기 채권시장의 핵심지표는 연체율이다. 여전사의 경우 차주에게 해당하는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5%까지 치솟은 것은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다"라며 "현재 5%를 웃도는 것도 경기불안의 신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채 금리가 상승해도 곧바로 차주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

이다. 여전사의 경우 사전에 조달한 자본으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금리인상이 이어져도 카드론과 캐피탈 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것 또한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시기에 조달한 비용으로 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전채 금리가 사상 최대폭을 기록하면서 관련 대출서비스의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전사들 또한 위험에 대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있다. 여전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운용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상승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카드사들 또한 갑작스럽게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대출 서비스로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상반기 非카드 여전사 순이익 3.7% 증가

총 2조700억... 전년 대비 735억 ↑
대출확대로 인한 이자수익 등 늘어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131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131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가 거둔 상반기 순이익은 2조7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9965억원) 대비 735억원(3.7%) 증가했다. 대출 확대로 인한 이자수익과 리스·렌탈 수익 증가 등에 힘

입어 11조546억원의 총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 3조1050억원이던 대출 이자수익은 올 상반기 3조 8031억원을 기록해 6981억원 늘었다. 할부금융과 리스는 각각 101억원, 3840억원 늘어난 6960억원, 2조 3711억원이다.

다만, 리스·렌탈 비용과 유가증권 비용이 늘면서 전체적인 비용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비용은 8조 9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 917억 원)보다 1조 8929억원 늘었다.

여기에 연체율도 소폭 늘어난 만큼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유도해 여전사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연체율은 0.88%로 전년말(0.86%)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1.36%로 전년말(1.33%)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 악화로 잠재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전사의 대출성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등돌린 外人... 외화예금 21.1억달러 감소

지난달 882억7000만달러
직접투자자금 회수 등 영향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회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882억

7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1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회수 및 일부 기업의 수입

결제대금 인출 등 기업을 중심으로 15억7000만달러 줄었다. 유로화예금도 일부 증권사의 해외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및 현물환 매도 등으로 4억 6000만달러 축소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24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외은지점은 3억 5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 및 개인예금이 각각 14억9000만달러, 6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백지연 기자 wldsu0248@

스타트업 발굴 '디노랩' 3.5기 기업 모집

우리금융그룹, 내달 10일까지 신청

우리금융그룹은 스타트업(Start-up)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할 3.5기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디노랩 3.5기 공모에서 ▲디지털플랫폼 ▲ESG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신산업·기술 분

야를 추구하는 미래 유망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디노랩 3.5기로 선발된 업체는 우리금융 그룹사와의 ▲협업 기회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채용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관악구 벤처혁신지구에 위치한 디노랩 제2센터의 독립 사무공간 입주 기회는 물론,

대형 세미나실·루프탑 라운지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참여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디노랩을 통해 총 102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26건의 그룹 연계 사업협력을 체결했으며 총 83개사 대상 956억원 규모의 간접투자 성과도 이뤄내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편반(아래쪽 왼쪽 네번째) 방문단장과 응우웬 바 지엵(윗쪽 왼쪽 네번째) 모모 공동 창업자 등 베트남 핀테크 연구단 일행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를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베트남 연구단, 핀테크 배우러 카뱅 방문

인터넷금융사 경영활동 파악

카카오뱅크는 베트남 국회에서 재무·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편반(Tran Van)을 포함한 10명의 베트남 핀테크 연구단이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 핀테크 연구단은 베트남의 디지털 뱅킹 및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인터넷은행 제도 및 운영 방식을 살피고, 카카오뱅크 등 대표적인 인터넷 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의 경영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베트남 핀테크 연구단은 전(前) 베트남 국회의원과 중앙은행 및 관련 인사 4명, 전자지갑 플랫폼으로 유명한 베트

남 핀테크 회사 모모(Momo)의 임직원 3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베트남 핀테크 연구단을 대상으로 출범 이후 5주년 동안의 발전 전략, 경영성과, 향후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200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을 확보한 금융 플랫폼으로, 카카오뱅크에서 편리하게 증권사 계좌를 여는 '증권사 주식계좌', 카카오뱅크 고객 전용 우대가 적용된 한도나 금리를 제공하는 '연계대출', 다양한 신용카드 신청을 대행하는 '제휴 신용카드' 등 메가 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DGB대구은행

5개 영역 할인 카드 출시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 활성화와 생활편의 업종 이용 확대를 겨냥한 'DGBi 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DGBi 카드'는 최근 소비트렌드를 규정하는 2가지 키워드 인터넷(internet, 온라인·모바일 중심 소비)과 인디비주얼(individual, 개인 가치 중요시)의 의미를 알파벳 i에 담은 신상품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고객 소비가 '인터넷 쇼핑, 배달앱, 편의

점, 커피, 이동통신 요금'의 5개 영역에 집중되는 것에서 착안해 해당 분야 할인에 혜택을 집중했다.

5개 할인 영역별 할인처를 보면 온라인쇼핑은 쿠팡·마켓컬리·무신사 등 9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등 3개, 커피는 스타벅스·블루보틀 등 7개, 편의점은 GS24·세븐일레븐 등 5개, 이동통신은 SKT·KT·LG U+ 등이다.

해당 영역별로 10%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최대 2만원, 전월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시 최대 4만원까지 5개 영역 합산 적용된다.

/구남영 기자